

# 韓國民謠에 나타난 姑婦關係 研究

A Study of Relationships Mother-in-Law and Daughter-in-Law  
As Portrayed in Korean Folk Song

전남전문대학 가정보육과  
조교수 金貞淑  
성신여자대학교 가정학과  
교수 金兌玄

Dept. of Home Child Care Chunnam College  
Assistant prof. : Jung Suk, Kim  
Dept. of Home Economic Sungshin Women's University  
Prof. : Taehyun, Kim

## 〈목 차〉

- |                   |             |
|-------------------|-------------|
| I. 서론             | IV. 결론 및 제언 |
| II. 한국 전통가족의 특성   | 참고문헌        |
| III. 민요에 나타난 고부관계 |             |

## 〈Abstract〉

This study is a the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in-law and daughter-in-law in a family based on the Korean family system. This is done by analysing how the traditional social system and the style of living are reflected in Korean folk songs. This I believe is a necessity in order to understand the emotions and ideas of the word 'familys' of Korea and to improve the state of the relations between mother-in-law and her daughter-in-law.

I have divided this into 4 essential study points.

First, the family system illustrated in Korean folk songs are mainly father centered family system. It caused a male-oriented society and women's subordination.

Second,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in-law and her daughter-in-law illustrated in folk songs are mostly vertical, subordinate. This is easily described

as a lord and servant relationship.

Third, the state of relationship reflected in the folk songs from a daughter-in-law's point of view is obedience to her husband's family, nostalgia to her family, desperation and opposition.

Lastly, the state of relationship from mother in law's point of view are discord, cruel treatment, rule and power which herself carry.

## I. 서론

한국 전통사회에서 가족의식이 구체적으로 발아하기 시작한 근거는 유교에서 찾을 수 있다. 유교의 기본강령인 三綱五倫은 가족간 윤리의 기본이며, 冠婚喪祭의 儀禮는 가족공동체를 결성시켜 주고 가족 구성원들간의 질서를 확립시켜주는 원리였다. 유교윤리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가치의식으로 생각한 것은 孝였다. 효는 조상을 중심으로 결속을 강화하여 가족 중심의 공동체를 지향하고 家系の 전승과 번영을 추구하게 한다. 여기에 가족 결속의 핵으로서 유대와 질서의 정점이며 가족의 長者인 家父長(장관진, 1989:45)의 존재가 부상하게 된다. 가부장은 가족 내의 모든 권한을 행사하며 그 권리의 계승을 아들이 함으로써 남자중심의 가족 관계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따라서 여성은 당연히 그 지위와 서열이 남성의 종속적 위치로 밀려나지 않을 수가 없었으며, 여성들은 누적된 怨과 恨을 어떤 방법으로든 발산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이다.

이 연구는 한국의 고부관계를 민요를 통해서 분석함으로써 한국의 전통적인 사회구조와 생활양식이 민요속에 어떻게 나타나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것은 가족의 사상과 정서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며 고부관계의 개선 방향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연구는 앞에서 제시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1) 한국민요에는 전통 가족의 특성이 어떻게 나타나 있는가?
- 2) 한국민요에는 고부관계중 며느리의 태도는 어

떻게 나타나 있는가?

- 3) 한국민요에는 고부관계중 시어머니의 태도는 어떻게 나타나 있는가?

이 연구는 위와 같은 연구목적 및 필요성에 의하여 고정옥의 [조선 민요연구], 김기동의 [가사문학], 양영규의 [국문학 개설], 임동권의 [한국민요집 I-VI]에서 시집살이요 24편을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고부관계 고찰자료인 민요는 민중의 생활과 감정을 표현한 노래이다. 임동권의 한국민요집 1권에서 6권을 주제별로 분석하면 전체 51%가 시집살이요이며 23%가 女難歌인데, 이 여타가 역시 시집살이의 간접적인 탄식이다(황미령, 1989:5). 그러므로 시집살이요와 여타가를 합하면 민요의 74%가 여성의 부정적인 삶을 고백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시가에서 고부관계를 고찰하려고 할 때 민요가 가장 적합한 장르일 것이다.

민요에 나타난 고부관계는 내용분석의 방법으로 분석 하였다.

## II. 한국 전통가족의 특성

### 1. 家父長의 特性

한국 가족을 한마디로 말하여 家父長制 家族(patriarchal family)이라 한다. 가부장제 가족에서는 가족원을 지배하는 권리와 가족원의 행위를 책임지는 의무, 그리고 가족을 포함한 재산을 관리하고 상속하는 권리가 최고 세대의 최고 연장자인 남자에게 있다. 최고 세대의 최고 연장자인 남자는 가장인 동시에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가 소유한 권한인 가부장권에

의해 가부장제가족을 운영한다.(이광규, 1984:9)

우리오랍시 남잔고로 논도차지 밭도차지  
 대궐같은 집도차지 하늘같은 부모차지  
 요내나는 여잔고로 목고가는 밥뿐이요  
 입고가는 옷뿐이요 시켜주소 시켜주소  
 글공부나 시켜주소 (임동권 I, 1993:394)

남성인 ‘오빠’는 논밭과 대궐같은 집,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한 반면 여성인 話者는 먹고가는 밥과 입고가는 옷 뿐인 차별대우를 받았다. 이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며 글공부를 시켜달라고 한다. 이는 단지 여자로서 태어나 받는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항의이다.

절레꽃은 장가가고 석류꽃은 상객가네  
 만인간아 웃지마라 씨종자받을라고 장가가네  
 (임동권Ⅲ, 1975:36)  
 백두산대맥에 칠성단두어놓고  
 아들딸 낳기만 발원이로구나, 예.  
 (고정옥, 1947:204)

여로부터 높은 산에는 산신령이 살고있어 정성을 다해 치성을 드리면 자손을 점지해 준다고 믿었다. 위의 노래는 家門의 後孫을 위한 생식기능의 중요함을 나타낸 것으로 장가가는 목적이 ‘씨종자’받기 위한 것 이라고 직접적으로 노래하고 있다.

2. 女性的 隸屬性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인간적 존엄성이 얼마나 제한되고 무시되었는가 하는 것은 소위 七去之惡이니 三從之道니하는 남성 중심의 법규가 단적으로 보여 준다. 七去之惡이란 아내를 내쫓는 일곱 가지 조항으로, 不順舅姑, 無子, 淫行, 嫉妬, 惡疾, 口舌, 盜竊이다. 무조건 순종하고 아들을 낳아주고 남성들이 아무리 축적과 타락을 일삼아도 정숙해야 함을 주장한 이러한 요구는 여성을 남성을 위한 소유물 내지 예속물로 취급했음을 여실히 알 수 있게 한다. 또 三

從之道라 하여 어렸을 적에는 부모를 좇고, 출가해서는 남편을 좇고, 남편이 죽은 다음에는 아들을 좇아야 한다는 세 가지 덕목은 여성의 인격을 인정하지 않고 남성의 부수적인 존재 내지는 예속물로 생각하였음을 설명하고 있다.

흰빨래는 회계씻고 검은빨래 검게씻어  
 집에라고 돌아오니 시어머니 하신말씀  
 애야아가 며늘아가 진주낭군 불러거든  
 아랫방 문열고봐라 아랫방 문열고보니  
 옥수같은 술을놓고 기생첩을 옆에끼고  
 건주개를 노는구나 (河東地方謠)  
 (임동권 I, 1993:114)

유교이념은 남녀유별로 남자는 하늘에 여자는 땅에 비유하여 남존여비의 질서를 정당화하였다. 남자에게 종속되어 있는 여자는 남편의 방탕과 수모, 학대까지도 무조건 견뎌야 한다고 가르쳤다. 남편의 외도에 투기하는 것은 七去之惡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안되고 賢母良妻라는 허울좋은 미명 아래 부당한 봉건적 윤리규범을 숙명으로 받아들여 체념하고 살아야 했다.

시집갔네 시집갔네 진주덕산에 시집갔네  
 시집간 사흘만에 서방님이 병이들어  
 앓아종신 서서종신 석달열흘 종신하였드니  
 모진놈의 잠이들어 인간가시는걸 못보았네  
 (達城地方謠)(임동권 I, 1993:116)

전통사회에서 여성의 정절은 생명보다 소중한 것으로 시집간지 석달열흘만에 청상과부가 되어도 평생 수절하며 살아야 했다. 이는 여자를 남자의 예속물로 보는 것으로 여자만의 인격은 인정하지 않았다.

어난닷 이팔이라 女必從夫 法을따라  
 물 좋고 盤石 좋은 福은房이 어대든가  
 天地日月 이세계에 원통할사 우리몸은  
 八年不知 남의男子 百年으로 言約했고

남의부모 부모삼고 남의동서 동서삼아  
 三從之道 法을좃아 원父母 兄弟되니  
 - 중 략 -  
 부모님께 손을받고 君子께 눈치보아  
 이곳저곳 벗님 청고 會聚한번 하여보세  
 - 중 략 -  
 봄해가 기다드니 오늘은 無情하네  
 華陰을 살기보니 夕陽은 달아나고  
 遠村에는 연기나고 牛羊도 달어오네  
 오늘은 우리놀음 고만하고 破興이라  
 滿座가 更立하야 돌아서서 하는말이  
 媿妹氏 앞스거라 형남내 뒤에오소  
 堂上에 媿父母님 늦기온다 꾸중소리  
 귀에쟁쟁 눈에삼삼  
 - 중 략 -  
 大門안에 들어서니 반기난이 개뿐이라  
 媿父母님 顏色보아 화중이나 안내실까  
 질겁도다 질겁도다 오늘우리놀음 질겁도다  
 明年三月 오거든 다시한번 하여보세  
 (倭館地方謠)(임동권 1, 1993:152)

조선조 전통사회는 부인의 순종과 恭順을 미덕으로 시부모의 허락없이 마음대로 나들이 할 수 없었다. 집안에서 세월을 다 보내니 대문 밖이 천리처럼 아득하다. 봄나들이 한번 가는데도 부모님께 허락을 받고 남편의 눈치를 보아야 한다. 나들이 가기도 돌아가서 들어야될 꾸중 소리가 '귀에 쟁쟁 눈에 삼삼'하다. 돌아와서도 시부모의 안색을 살펴야하는 마음 조림이 여자의 삶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는 여자를 남성의 예속물로 보는 남성우월주의 사상에 근거한다.

### Ⅲ. 민요에 나타난 고부관계

한국시가문학의 여러 장르 중에서 고부관계를 가장 상세하게 취급하고 있는 것은 민요이다. 朝鮮民謠集成(김사엽외2인, 1948)에 의하면 민요를 女謠와 男謠, 童謠 기타로 분류하였고, 여요 197편은 다시 주제별로 결혼요, 가정불화요, 연정요, 노동요, 사친

가로 정리되었는 바 이 중에서 결혼요와 가정불화요 74편은 다름 아닌 시집살이의 내용임을 알 수 있다. 또 연정요나 노동요, 사친가 가운데 시집살이의 설음과 고됨이 부분적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간접적인 배경으로 나타나 있기도 하여 한국 민요 중 여요의 대부분은 시집살이요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은 민요를 자료로 하여 분석한 고부관계의 양상이다.

#### 1. 며느리의 태도

고부관계에서 볼 수 있는 며느리의 보편적 태도는 순종과 인내다. 대부분의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무조건적 순종을 덕목으로 삼는 것은,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관계를 고부관계로 인식하기 전에 장유유서의 수직적 주종관계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삼강오륜을 최상의 윤리로 지키는 사회에서 시어머니 어렵고 두려운 것은 당연한 일 일 것이다. 환경과 가풍이 다른 집에서 시족들과의 관계는 처음부터 많은 갈등의 요인을 가지고 있을 수 밖에 없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갈등관계는, 가정에서 열세인 여성의 소외의식을 반영하는 현상으로, 시집살이의 억울함과 원통함을 토할 수 있는 민요는 며느리의 유일한 심리적 해소책이었다. 대부분의 婦謠가 원망적이고 탄식적이며, 애원과 羨望(임현도, 1965: 28-30)의 특징을 가진 것은 그때문일 것이다. 민요에 나타난 며느리의 태도를 순종, 좌절, 반항, 동경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 1) 順從

순종은 儒敎的 생활습성에 익숙한 사회풍토에서는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었다. 三綱五倫은 결국 인간관계에서 지켜야 할 도리를 강조한 것이며 인간간의 도리란 다름 아닌 자신의 처지를 알아 공경하고 순종하는 예절을 강조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결혼한 여자를 내쫓을 수 있는 일곱가지 조항 중 첫 번째의 것이 '不純父母去' 곧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가야한다는 것이다. 舅姑의 학대나 媿族의 멸시가 아무리 혹심할지라도, 자중하고 겸허하게 인내하고 복종하는 것만이 며느리로, 아내로의 위치를 지킬 수 있었다.

無男獨女 외팔 아기 金枝玉葉 길러내어  
시집살이 보내면서 어머니의 하는말이  
시집살이 많단다 보고도 못본 체  
듣고도 못들은 체 말 없어야 잘 산단다

그말들은 외팔 아기 가마 타고 시집와서  
병어리로 三年 살고 장님으로 三年 살고  
귀머거리 三年 살고 석 三年을 살고나니  
미나리꽃이 滿發했네

- 중 략 -

어서 어서 돌아가서 병어리던 외팔아기  
할수 없이 돌아가서 잡은 꿩은 다 뜯어서  
숯불 피워 구어다가 노나주며 하는 말이  
날개 날개 댔던 날개 시아버지 잡수시고  
입술 입술 놀리던 입술 시어머니 잡수시고  
요 눈구멍 저 눈구멍 휘두르던 눈구멍은  
시 할머님 잡수시고 호물 호물 웅문통은  
시하래비 잡수시고 좌우 붙은 간덩이는  
시누이님 잡수시고 배알 배알 곱배알은  
시아주범님 잡수시고 다리 다리 버렸던 다리  
신랑님이 잡수시고 가슴 가슴 썩이던 가슴  
이 내 내가 먹읍시다.

못할네라 못할네라 시집살이 못할네라.

열새무명 열폭치마 눈물받기 다씩었네(殷粟地方謠)

(김기동의 4인, 1983:460)

자랄 때는 無男獨女 외팔 아기로 金枝玉葉처럼 자랐지만 시집살이를 견뎌야 한다는 점에서는 예외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많단은 시집살이에서는 보고도 못본 체 듣고도 못들은 체 ‘말 없어야 산단다’라는 어머니의 훈계에 따라 병어리로, 장님으로, 귀머거리로 석삼 년씩을 산 ‘외팔 아기’의 모습은 ‘미나리꽃이 만발했네’로 비유될 만큼 육체적인 시달림과 정신적인 고통을 함께 반영하고 있다.

며느리가 당하는 고통은 단순한 심신의 고통이나 억압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로부터 남성과는 물론 동성인 시집식구와 현저하게 차등을 두는 천대를 받았다.

꿩으로 전개되는 표현은 단순히 음식이 된 동물의 부위를 지칭하지 않고 각 부위의 상징성을 인간의 특성과 연관했다는 것이 문학적 기교로 보인다. 꿩의 각 부분은 뛰어난 암시력으로 媿族들의 성격을 묘사하고 시집살이의 괴로움을 묘사한 이 노래는 시집살이에서 겪게되는 인간관계의 괴로움을 한마디로 꿩을 통해서 나타냈다.

뒷동산에 치쳐올라 피매초리 한 마리를  
사냥하여 잡아다가 앞넛물에 맑게씻어  
세발달린 술에영고 말빛같은 간장물과  
밀짚같은 장작으로 악각작각 볶아내어  
열두상을 보아놓고 시아버님 일어나소  
은대늦대 물떠냈소 세수하고 밥잡수소  
네나먹고 개나주고 발매러나 가라무나  
시아마님 일어나소 은대늦대 물떠냈소

(임동권II, 1974:345)

시부모를 위하여 열두상을 보아놓고 그들의 세수물까지 떠다 바쳐도 개밥이나 주고 발매러나 가라고 한다. 며느리는 문서에도 없는 종이나 다름없었다. 이런 대접을 받으면서도 여자인 며느리는 순종하며 살아야 했다.

## 2) 挫折

아무런 주권도 인격도 없이 오로지 인종과 굴욕만을 강요하는 시집살이에서 부녀자가 당하는 억울함과 비통함을 컸을 것이다. 그리고 비통함과 억울함이 전혀 해소될 방법을 찾지 못했을 때 그것은 쌓여 ‘恨’을 이루게 된다. 우리나라 부녀자들은 다른 나라의 부녀자들에 비해서 유독 ‘恨’이 많다고 한다. 가슴 속에 맺힌 울분을 풀지못하면 그 자리에서 좌절하거나 속세를 떠나 도피하고 싶은 심정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시집간 삼년만에 서방님이 서울이라 장안안에  
 베슬처럼 가시더니 육삼년이 다되어도  
 일자소식 전혀없네 허다허다 못혀서

- 중 략 -

우리구야 한숨짓고 한강수 깊은 물에  
 빠져볼까 내 신세야. (임동권Ⅳ, 1979:313)

아직 신희의 꿈이깨기기도 전에 서울간 서방님은 육삼년이 다되어도 소식 한 장 없다. 돌아오지 않는 입을 기다리다 못해 한강수를 바라보며 죽기라도 하고 싶은 아내의 심정을 노래한 것이다. 이는 남편에게 이미 잊혀졌는지도 모를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좌절한 것이다.

시어머니 하신 말씀 애야아가 며늘아가  
 어사낭군 오셨단다. 사랑방에 드가봐라  
 그말들은 며느리는 반갑기 한이없어  
 외씨같은 버선에다 흥감사 치마에다  
 은화장 귀고리에 채복단장 곱게하고  
 사랑방에 들어가니 집나가 삼년만에  
 어사되어 오신낭군 기생첩을 옆에두고  
 오색가지 술을놓고 말한마디 아니하고  
 부어라 마시어라 세월이로세  
 윗방으로 올라와서 심중에 있는 말을  
 아홉장에 다써놓고 명주세필내어다가  
 목매달아 죽었다네 (永同地方謠)  
 (임동권Ⅱ, 1974:385)

좌절이란 다름 아니라 삶의 의욕을 상실하는 마음의 상태를 일컫는 말일 것이다. 순종하거나 인내함으로써 극복하지 못하고 고난과 역경에 항복하는 자세가 곧 좌절의 모습이다. 위의 노래는 안타깝게 기다리던 남편이 돌아왔다가 곱게 치장하고 남편을 보러가니 남편은 기생첩을 옆에 끼고 술을 마시며 말한 마디 하지 않는다. 시집살이의 어려움을 견딜 수 있었던 것도 남편에 대한 기대 때문이었는데 모든 기대가 무너졌다. 부녀자들이 유교적 이념의 가족제도와 사회규범의 폐해를 받아들이면서도 일변 거부하는 수단으로서 손쉽게 택한 것이 죽음이었다. 따

라서 죽음은 가장 강한 반항이라고 할 수도 있겠으나 강한 반항인 동시에 가장 소극적인 대처이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죽음을 좌절로 처리하였다.

3) 反抗

시집오기 전에 친정어머니는 孀家親族을 섬기는 방법과 修身, 부부의 도, 효친, 형제, 친척간의 돈목, 자녀교육, 가사, 봉제사, 가계운영, 접빈객(接賓客) 등 여성이 갖추어야 할 일들을 자세히 가르쳐 주셨다. 그러면서 시집살이가 고되고 어려워도 모든 것을 참고 견디라고 당부하셨을 것이다.

이 訓戒는 恭敬과 順從에는 성공했으나 시집살이의 현실은 너무나 가혹하여 눈물로 세월을 보내게 된다. 그래도 내면에 남아있는 울분과 恨은 때론 반항의식으로 마음 속에 혼자 품거나 노래로 중얼거릴 뿐 행동으로 옮기지는 못했다. 그러나 민요에서는 실제로 표출할 수 없는 반항의 행동을 대담하게 표현할 수 있었다.

시집은지 사흘만에 가사구경 하라하고  
 아래도장 내려와서 은잔하나 만지다가  
 은잔하나 깨트렸네 고초같은 시아바씨  
 청붓틀 걸았으며 아래왔는 저미느라  
 너그집에 가거들랑 은잔하나 물어다고  
 호초같은 시어머니 방문왈락 열터리며  
 아래왔는 저미느라 너그집에 가거들랑  
 노비전답 다파나마 은잔하나 물어다고

- 중 략 -

八幅屏風 돌려치고 닭한쌍을 마주놓고  
 나무접씨 디젤쪽에 은잔하나 대단튼가  
 잘가시오 잘계시오 은손잡아 작별할제  
 은잔하나 대단튼가 밤봉셋별 높이뜨고  
 쥐도새도 모를쪽에 은칸몸을 헐었으니  
 은칸몸을 채외주면 은잔하나 물어춤세  
 시아바씨 이말듣고 앗다말야 남이알라  
 너그털줄 내물렀다 孝婦로다 孝婦로다  
 앞동산 낭쿨비어 뒷동산에 터를뒀야  
 삼간밭땅 지어주마 (善山地方謠)  
 (임동권, 1963:30-32)

갓시집은 며느리가 시집에서 일을 하다 은잔을 깨트렸다. 媿族들이 모두 은잔값을 물어내라는 성화를 한다. 시집온지 사흘. 아직은 결혼의 기대나 꿈에 부풀어 있을 때 은잔 하나 실수로 깨뜨린 것에 대한 질책으로 그녀는 일꾼으로 전락한 자신을 보게 된다. 여기에서 '당신 아들이 이내 몸을 헐었으니 은잔 몸으로 채워주면' 은잔값을 물어 주겠다고 한다. 시가 가족에 대한 반항이며 抗議이다. 이것은 참는 것이 미덕이라는 사회 통념을 깨고 자기 주장을 펴서 전통인습에 대한 반항하는 노래이다.

다음 민요는 배타적인 媿族과 婚入하여 들어온 이질적 구성원인 며느리사이의 갈등을 새에 비유하여 노래하였다. 유머에 없어서 시집식구들의 특성을 꼬집어서 비난한 내용이다.

시아버지 호랑새요      시어머니 꾸중새요  
동새하나 할림새요      시누하나 뽀죽새요  
남편하나 미련새요      나 하나만 썩을 새새  
(慶山地方謠)(임동권 I, 1963:139-140)

시족들의 성격 하나하나가 잘 묘사되어 있다. 시아버지가 '호랑새'라고 하는 것은 산중 맹수 '호랑이'에서 '호랑'이라는 음을 차용한 새 이름이다. 이는 화자의 창작적인 명칭일 것이니 호랑이 처럼 무서운 시 아버지임을 시사하고 있다. 시어머니가 '꾸중새'라는 것은 늘 꾸중을 내리기 때문이고 하나밖에 없는 동서가 '할림새'라는것도 의젓한 신뢰성을 주지 못하는 사람임을 표현한 것이며, 시누이는 변덕이 심하여 걸핏하면 뽀죽 뽀죽 토라지니 '뽀죽새'라고 이해할 수 있다.

의지할 유일한 대상인 남편은 다 알면서도 모르는 척, 못본척 무관심하게 지나치는 '미련새'요, 자기는 혼자서 가슴을 썩히고 태우는 '썩을 새'라고 자조하였다. 부녀자들이 가슴에 품은 한이 얼마나 깊은가를 보여주는 재치있는 민요다.

#### 4) 憧憬

시집간 여자에게 그리움의 대상이자 의지할 수 있는 곳은 오로지 친정이 있을 뿐이다. 노동과 학대에

시달리면 시달릴수록 부녀자들은 친정을 그리워하게 되고 동경과 그리움으로 다소나마 시집살이의 고통을 망각할 수 있었을 것이다.

새벽서리 찬바람에      울고가는 외기러기가  
東南갓은 向해가나      東海西山 向해가나  
우리집을 가거들랑      이내말을 傳해주소  
우리어매 묻거들랑      옷을벗고 우드라스  
우리아배 묻거들랑      신을벗고 우드라스  
(義城地方謠)(임동권 I, 1963:142)

화자는 '새벽서리 찬바람에 울고 가는 외기러기'를 보면서 시집살이에 시달리며 슬픔에 젖어 있는 자신의 형편을 친정에 전달해 달라고 호소한다.

친정에서 걱정할까봐 자신의 처지를 미화하여 말하지 않고 '우리 어매 묻거들랑 옷을 벗고' 울더라고, '우리 아배 묻거들랑 신을 벗고' 울더라고 전해 달라 당부한다.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추억 속에 있는 친정생활에 대한 그리움이 아니다. 절박한 현실에서 울부짖는 절규인 것이다.

한길에 가던 손님      친정 손님 오시는가  
손님이 대문밖으로 가니      손님도 날 속인다  
하늘에 저기러기      친정에 맹겨오노고

- 중 략 -

그러쿠로 친정가는 날이 닥쳐 열두마리 도복받고  
아버님 배행서고      오던 길로 호양하니  
앞의 모양 부지구나      뒤의 모양 정지구나  
어떡어떡 말만 몰아타고      전에 보던 동산에 달렸구나  
(達成地方)(임동권 I, 1963:135)

친정이 그렇고 친정소식이 궁금하여 한길에 지나가는 손님을 친정손님이 아닌가 착각하는 것이다. 자유롭게 하늘을 나는 기러기를 향해서 너는 친정에 다녀오느냐고 묻는 화자의 그리움은 극에 달해 있다. 드디어 말을 타고 친정에 가는 날의 풍경을 그리면서 화자는 환상에 잠긴다. 시아버지가 배행을 서는 가운데 응위를 받으면서 친정행 나들이를 떠나는 장면은 시집에 갇혀서 고생만 하던 며느리의 정신

속에 각인된 이상적인 자기 모습인 것이다.

2. 시어머니의 태도

1) 불화와 학대

유교사회에서 夫婦有別의 倫理는 부부간의 직접적인 애정표현도 할 수 없고 他人과 같이 행동해야 했다. 심한 경우 부부관계에서의 애정의 대리체로 아들에 대한 무의식적인 집착을 보일 수도 있었다. 사회구조상 母子관계가 부부관계 중심이 되는 경우가 더 많았다. 따라서 어머니의 아들에 대한 애정이 강할 만큼 며느리에 대한 敵意가 증대되었을 것이다.

시집간지 삼일만에	시어미가 물줄길러가라하기로
물동이를 옆에끼고	삼사대문 밖에 썩나서서
좌우산천경계가 절승기로	바라보다가 물동이를 박살먹었네
한손견에는 똥아리들고	또한권 손에는 바가지들고
어청어청 들어오니	시어미 하는말이
앗다 이 방정맞은 간나야	남의집 백여대 내려오는
질반동이를 왜 박살먹었니	며늘에기 하는 말이
앗다 이 쌍간나야	너의집 질반동이만 귀하고
너의집 장손이는 첫날나주에	웁새기름을 두어도 아니셀
이내 월경수단대를	왜 깨뜨렸느냐

(임동권Ⅵ, 1993:168)

질반동이 깨뜨린 것에 대한 시어머니의 욕설에 며느리도 시어머니 면전에서 욕을 하고 있다. 고부간의 갈등에서 며느리가 시어머니에 대한 적대감은 일반적으로 內面化 되거나 간접화되는데 이 노래에서는 불화와 대결 양상이 드러나 있다.

씨어미녀석이 케쿠라지면 안고방도 내차지요  
 씨누이녀석아 케쿠라자라 열쇠차지도 내차지려라

(임동권Ⅲ, 1975:176)

媿宅家族들에 대한 미움과 불화의 표현이다. 시어머니, 시누이와의 문제는 ‘안고방’ ‘열쇠’의 차지를 놓고 벌이는 집안에서의 주도권 다툼으로, 이는 가족내에서 자신의 위상을 적립시키려는 노력이 갈등

으로 나타났다.

형님 형님 사촌 형님	시집살이 어땀디까
아고 애야 말도 말아	고초 당초 맵다더니
시집살이 삼년만에	붓끝갈던 이내 손이
오리발이 되어지고	삼단 같은 머리채가
숫밤송이 되었구나	(平北宣川地方)

(양염규, 1959:572)

출가하여 시댁 식구 보다는 허물없는 사촌 형님께 시집살이를 묻는다. 그러나, ‘고초당초 맵다’해도 시집살이 보다 더 매우랴로 시작되는 시집살이에 대한 탄식과 신세타령을 들으면서 결혼의 기대와 희망은 여지없이 무너진다.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같은 여자로서 생활영역과 작업영역이 같고 가사 처리에서 접촉하는 시간이 많다. 시어머니는 성취지위의 경쟁자, 자기가 구축한 아성의 침략자, 아들의 사랑을 빼앗아간 공격자라는 입장에서 며느리에게 심한 시집살이를 시키는 것이다.(양염규, 1959:13) 즉 부계가족의 구조적 필연성이 특별한 母子關係를 이루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 지배와 권위

시어머니는 며느리와와의 관계에서 단연 지배자인 동시에 권위자이다. 우성부자 관계선 가설에 따르면 가족은 그쳐해있는 위치에 따라서 구성원간의 지배적인 관계선이 설정된다.(Hsu, F.S.K, 1969) 가족을 중심으로 생각할 때 가족이라는 한 집단은 모자관계, 부부관계, 자매관계, 형제관계, 고부관계, 기타 여러관계가 성립되는데 여기에는 반듯이 하나의 관계가 다른 관계에 비하여 優性的으로 나타나는 체계가 형성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優性的 關係에서는 다른 관계에 대해 항상 優先的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三綱五倫이라는 사회 윤리에서 長幼有序的 질서는 고부간의 인간관계를 上下的, 直線的, 垂直的 主從관계로 하였다. 며느리는 年下者로, 下世人으로서 시어머니에게 무조건 복종하라는 사회윤리를 강요한 것이다.(이광규, 1984:19)



호랑같은 시어머니      가요가요 나는 가요  
 (임동권 II, 1974:343)  
 저 남산이 높다하면      시어미처럼 높을소며  
 (임동권 II, 1974:343)  
 구름같은 시오마이      범같이도 달려들어  
 (임동권 I, 1961:132)

고치장이      맵다하니      새어미두구 더맵더나  
 어승이꽃이      곱다하니      남편두구 더곱졌나  
 함박꽃이      곱다하니      아들두구 더곱졌나  
 외나무다리      험하다하니      새형두구 더험하겠느냐  
 七月白菜      푸루다하니      만동새두구 더푸르겠느냐  
 당구슬기      세다하니      시앗두구 더세겠나  
 닭부리      세다하니      새누비두구 더세겠나  
 (富鎭地方)(임동권 I, 1993:132)

위에서 시어머니는 구름이나 남산같이 높고, 호랑이나 범같이 범할 수 없는 무서운 존재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시어머니의 位相을 나타낸 것으로 시어머니의 권위에 비해서 며느리의 위상은 낮은 것으로 고부관계의 구조는 수직적 主從關係이다. 그러나 이는 며느리의 시어머니에 대한 존경심으로 인해 형성된 권위나 위엄이 아니라,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억압하고 지배함으로써 얻어낸 부자연스러운 권위이다.

媿族에 대한 불화와 적대감 속에서 남편과 자식만은 꽃으로 나타내었다. 이는 가족에 대한 감정을 적절한 비유로 나타낸 것이다. 시가에서 며느리에게 가장 어려운 존재는 시아버지이다. 시아버지는 가장이자 혼인 결정자이며 남편을 낳아 준 사람으로 최대의 충성과 효행을 경주해야 할 사람이다. 시어머니는 주부권자로 시아버지에 준하는 존재를 해야하고 그의 敎示에 순종하여야 한다. 그러나 시집식구치고 누구하나 친근하고 다정한 사람이 없다. 媿家の '媿'라는 것 자체가 며느리에게는 부담스럽고 고역스러운 위압이며 지배인 것이다.

시집가던 사흘만에      징개맹개 왜미뜰에  
 발매로도 가라해서      한골매고 두골매고  
 삼세골 거듯매니      달이뻗네 달이뻗네  
 집이라고 들어서니      며슴놈의 거동매고  
 짜리비를 들고서서      대청마당 울리면서  
 요권내야 물러세게      저 권내야 물러서게  
 누야홍구 널라고야      달뜨도록 밭을 매노  
 (安東地方謠)(임동권 I, 1993:137)

#### IV. 결론 및 제언

위의 민요는 시부모의 지배와 권위가 새며느리의 노동까지도 비난하고 억압하였다. 한 가정에서 그 굶주림의 가장 큰 희생자는 부녀자였다. 부녀자는 결혼 직후부터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달이 뜨는 시각까지 밭을 맨다. 그러나 결과는 칭찬받지 못하고 꾸중만 듣는다. 달이 뜨도록 밭을 맨 것은 시집의 흉을 물어내는 요망한 것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비난은 시집어른만의 비난이 아니라, 하인까지도 '요권내야 물러세게, 저 권내야 물러서게' 하면서 멸시하기에 이른다. 이러한 현상을 통하여 며느리의 위치가 하인만도 못하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는 것이다.

고부관계는 원천적으로 父系중심의 가족구조에서 파생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가부장적 가족구조에서는 남성을 중시하여 며느리에게 득남을 강요하며, 이것이 결과적으로 특수한 모자관계를 형성하는 요인이 되는 것이다. 아들은 어머니의 情緒的 求心點이 되고, 남편과의 媒介의 존재로서 어머니의 위상을 정립시켜 주기 때문에 아들에 대한 어머니의 집착은 크다.

한국 민요에 나타난 고부관계의 양상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한국 민요에 나타난 전통가족의 특성은 家父長的 구조로 가계계승을 위한 남자우선과 생식기능의 중시, 부모봉양을 위한 효 사상을 중시하였다. 또 여성은 남성의 부수적인 존재이며 남성에게 종속된 존재로서 가부장적 구조는 여성의 예측성을 초래하였다.

범이그리      세다하니      새아버두구 더세겠나

둘째, 한국민요에 나타난 고부관계는 上下의 수직적 主從關係이다.

셋째, 며느리의 태도는 媿族에 대한 순종, 좌절, 반항과, 친정과 유년시절의 동경으로 나타났다.

넷째, 시어머니의 태도는 불화와 학대, 지배와 권위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한국의 고부관계를 민요를 통해서 분석함으로써 전통사회 구조와 생활양식이 민요 속에 어떻게 나타나 있는가를 고찰하였다. 이것은 가족의 정서와 사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며 고부관계의 개선방향에 있어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는 차후 가족학 연구와 기타 주변 학문과의 다양한 관련 가능성을 시사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후속되는 과제는 한국문학에 나타난 인간관계의 갈등요소를 찾아내어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예컨대 민요, 내방가사, 현대시에서 동일한 주제의 가족관계를 고찰하는 일, 즉 고부관계, 부부, 부모·자녀관계를 현대시, 시조, 내방가사등 각 장르별로 연구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그 결과로 부부, 부모·자녀, 고부관계의 장르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1) 고정옥(1947). 조선민요연구. 서울:수선사.
- 2) 김기동 외(1983). 歌辭文學. 서울 : 서음출판사.
- 3) 양염규(1959). 국문학개설. 서울 : 정열사.
- 4) 이광규(1975). 한국가족의 구조분석. 서울: 일지사.  
\_\_\_\_\_(1984). 한국가족의 심리문제. 서울: 일지사.
- 5) 임동권(1963). 한국민요집 I. 서울: 집문당.  
\_\_\_\_\_(1993). 한국민요집 I. 서울: 집문당.  
\_\_\_\_\_(1974). 한국민요집 II. 서울:집문당.  
\_\_\_\_\_(1975). 한국민요집 III. 서울:집문당.  
\_\_\_\_\_(1980). 한국민요집 VII. 서울:집문당.  
\_\_\_\_\_(1963). 시집살이 謠考. 숙명여대 아세아여성문제연구소.  
\_\_\_\_\_(1982). 韓國婦謠研究. 서울: 집문당.
- 6) 임헌도(1984). 한국민요의 분석적 고찰. 공주사대 논문집. 제2집.
- 7) 장관진(1989). 韓國民謠에 나타난 家族意識 研究. 동아대학교 박사논문.
- 8) 황미령 (1989). 한국부요의 특성연구. 강원대 교육대학원 석사 논문.
- 9) Hsu, F.S.K. (1969). The Study of Civilization. Chicago : 김주희역(1985). 이에모또. 서울 : 현상과 인식.